

## 현장의 소리

이 광 우\*

### 들어가는 글

2002년 올해는 선거가 너무나 많은 해입니다. 6.13 지방선거, 교육감, 교육위원선거, 대통령선거와 각종 보궐선거로 인하여 공무원의 수난의 해입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 중의 하나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자부심을 갖는 것 중에 선거를 할 수 있는 권리가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선거는 과연 국민의 의지와 다르게 흘러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불신과 반목의 증대만 남기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시민이 모이면 가장 관심이 있고, 남자들의 술자리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 중의 하나가 선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선거에 대한 이야기는 항상 마

지막에 욕으로 마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이유는 정치인에 대한 불만입니다.

이러한 원인을 고민하면서 선거에 대한 불만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선거는 타락의 기본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국민의 정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치인이 앞장설 시기는 지났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련 선거공무원이 앞장서서 활동할 입장도 아니었습니다. 모든 일반시민은 공무원에 대한 인식이 너무나 좋지 않은 것 또한 문제였습니다. 저도 국립대학의 교수로서 공무원입니다. 왜 우리는 시민에게 존경을 받지 못하는가를 고민하면서 공무원의 자부심이 없기 때문이며, 공무원이 자부심을 갖기 위해서는 자체적인 개선보다는 외부에서 개선을 유도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 판단하였습니다. 민주주

---

\* 바른선거실천시민모임 공동회장, 경상북도 바선모협의회 회장, 상주대학교 교수.

의에 가장 중요한 선거에 대한 개선이 공무원이 존경받는 지름길이라 판단하고 관심을 갖게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선거관련 공무원은 아니지만 공무원인 본인이 시민단체를 구성하여 시민의 힘으로 앞장서면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으로 99년 12월 상주시에서 바른선거실천 시민모임을 설립하여 2001년 3월에 경상북도에 등록하였고, 2001년 4월 바른선거시민모임 전국연합 조직되어 행자부에 등록을 마쳤으며, 바른선거실천시민모임 경상북도협의회도 조직되어 2002년 등록을 하였습니다. 우리 단체의 목적은 바른선거를 실천하여 선거를 축제화하자. 그리고 모든 선거는 점진적인 개선이 공명선거의 지름길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시민이 앞장서서 선거관련 문제점을 개선하자는 것입니다.

초창기의 단체 설립시에 주위의 비난과 걱정은 너무나 많은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중앙선관위와 행자부, 경찰청 등 모든 선거관련 부서에서 우리단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선거의 중요성을 우리부터 인식하고 우리부터 선거에 참여하자는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시민단체로서 앞장서는 초창기의 우리 활동에 상주시 선관위도 서서히 지원을 하면서 주의깊게 관심을 나타내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 하고싶은 글

### 1. 선거는 참여하여야 합니다.

선거에 참여한 방법은 입후보하는 방법과 투표하는 방법, 그리고 봉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떠한 방법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유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나라에서 생활하는 기본권인 권리인 동시에 의무입니다. 선거에 관심없다고 자주 말하는 사람도 본심은 대단히 선거에는 관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은 뒤에서 불평과 불만을 이야기합니다. 소심한 잘못된 시민의식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이제는 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존경받는 모든 분은 선거에 참여하여 봉사하는 것이 가장 미덕으로 생각하여야 할 시기가 도래하였습니다.

### 2. 입후보자는 존경하여야 합니다.

선거에 본인은 용기가 없어서 입후보하지도 못하는 사람이 입후보한 사람을 비방하기는 좋아합니다. 선거의 가장 기본은 입후보자가 있어야 합니다. 입후보자가 없으면 선거의 필요성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입후보한 사람은 가능한 존경을 하여야 합니다. 비방보다는 용기를 주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본인이 용기가 없어서 선거에 참

여하는 일차적인 자격인 입후보하지 못한 것에 미안함을 가지고, 입후보한 사람은 본인보다는 무엇하나라도 좋은 부분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여 존경을 하여야 합니다.

### 3. 선거는 축제화되어야 합니다.

항상 시민은 선거의 불신과 불평을 합니다. 하지만 본인은 선거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선거에 참여하는 것은 인생의 오점을 남긴다는 잘못된 인식에서 출발하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지역에서 존경받는 인물은 선거에 입후보하는 일을 거절하면서 개입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결국은 선거에 개입하면 손해라는 인식이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 선거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이 축제를 즐겨야 합니다.

### 4. 선거 참여 공무원은 가장 우수한 분으로서 선거참여에 자부심이 있어야 합니다.

지난 4.13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하면서 공무원의 차출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였습니다. 선거에 차출 동원된 공무원은 불평이 심하였습니다. 그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이 원하여서 한 것이 아니라 억지로 동원된 것이라는 생각을 가진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선거 참여에 대한 자부심은 찾아보기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선거기간동안에는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투개표 참가요원도 동일한 사항이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선거를 마치고 차출된 공무원(시청 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통신공사, 선거관련 공무원)에게는 바른선거실천시민모임의 표창과 부상을 모두에게 안겨 주었습니다. 이것은 선거에 참여한 공무원에게 시민단체의 대표 표창은 자부심을 갖기에 충분하였습니다. 금전적인 것보다는 자신의 봉사를 알아주는 단체가 있다는 것이 그들의 자존심을 높여 주었습니다. 하지만 차출되지 못한 공무원은 약간의 시기와 질투도 있었습니다. 그 후로 선거에 동원된 공무원의 인식은 많이 변화하였습니다.

선거를 마치고 중앙선관위를 비롯한 행정자치부, 국회 등에 건의하여, 선거에 참여한 공무원의 수당 인상에 대해서 건의를 하여 올해에는 투개표 참여자의 수당이 현실화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올해의 선거에서는 투·개표 참여자 요청시에 요청받은 기관에서 선거참여 공무원 모집시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였으며 선거를 마친 후에도 많은 불평은 없었습니다. 웃으면서 다음 선거에도 요청시에 투개표 요원으로 참여할 생각이라고 말씀하신 분이 많았습니다.

## 5. 봉사만 강요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6.13 선거를 마치는 날에 당연히 선거 후에 수당의 지급이 되었다고 판단한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이 수당 지급이 되지 않은 것을 알았고, 이것은 선거의 축제화에 가장 잘못된 것으로 판단하여 중앙선관위, 행정자치부, 경찰청에 건의서를 보낸 결과 수당을 지급가능토록 하였습니다. 이후 경찰 공무원도 그동안 금전적인 문제보다는 자신들의 고생을 알아준 것에 감사한다는 인사를 하는 것을 보고는 진정한 선거 축제는 피해자가 없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제는 선거 관계 요청시에는 즐거운 마음으로 언제든지 봉사하겠습니다는 경찰관님의 말씀은 바른선거의 기반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 6. 이제는 선관위도 변화하였습니다.

이제는 선거관리위원회도 많이 변화하였습니다. 그동안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의 감시와 감독에 주안점을 맞추었지만 이제는 바른선거 홍보에 주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선관위가 시민의 곁으로 다가간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가장 보수적인 공무원이라고 평가를 받았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변한 것입니다. 시민에게 봉사하는 적극적인 자세로 변한 것입니다. 선거에는 감독은 부수적인 것입니다. 바른선거를 하도록 홍보하고 교육하는 것이 주요한 업무이며, 그동

안 선관위에서 하였던 감시와 감독은 부수적인 것이라는 시민단체의 주장에 귀를 기울린 것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 최고의 인기 연예인 장나라양의 선거홍보위원 위촉은 선관위로서는 획기적인 사고의 전환이었습니다.

## 7. 이제는 기반 조성은 되었습니다.

이제는 선거에 대한 지원기반은 개선되었습니다. 이제는 누구나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하였습니다. 우수한 분이 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선거 입후보 기탁금을 하향하였고, 선거 후에 후보자에게 보상하는 반환금도 인상하였습니다. 또한 선거에 대한 모든 비용을 포함한 공영제가 실시될 전망입니다. 이제는 선거 참여에는 누구나 할 수 있도록 개선된 것입니다.

## 8. 이제는 시민만 개선되면 바른선거 실현은 가능합니다.

시민의 선거에 대한 의식은 완전히 개선되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번에 입후보한 분은 유권자가 많이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금권과 인맥이 지난 선거보다는 타파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점진적인 개선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민단체로서 미래의 주역인 학생들의 바른 선거에 집중하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기

존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바른선거 홍보 보다는 새로운 신세대 후보자이자 예정자인 청소년의 선거에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기존의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선거의 투표율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성인의 유권자에게 그동안의 잘못된 선거에 대한 관념이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선거에 대한 문제점이 선거가 개선되었지만 그분들의 사고는 옛날의 선거에 대한 사고를 그대로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선거에 대한 인식을 홍보를 통하여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공명선거 및 바른선거를 홍보함으로써 선거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축제화되도록 노력하여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마치는 글

선거는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중의 하나입니다. 민주주의를 위하여 70년과 80년 유신철폐를 외치면서 학업을 전폐하고 대모를 한 이유를 고민하여 보았습니다. 어려운 시절에 우리는 진정한 자유인 민주주의 실현을 위하여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선거에 대한 국민의 뜻을 표현하는 의회민주주의 요청한 것입니다. 일반시민이 의회 민주주의에 참여하는 방법이

선거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모든 시민은 선거에 대한 불만을 항상 토론하지만 개선에는 소극적이고, 선거를 마치면 불평과 불만만을 증대시킨 것이 현실입니다.

이제는 공무원도 선거 참여시에 자부심을 갖고, 봉사하는 자세로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변화가 되었습니다. 선거관계자는 축제를 위한 준비는 마쳤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와 선거관계자 및 공무원이 앞장서서 공명선거와 바른선거를 홍보함으로써 선거는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선거를 위해서 경찰공무원이라는 신분 때문에 수당도 없이 묵묵히 고생한 일선 경찰공무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해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모든 선거에 자동선거개표기의 도입으로 선거참여공무원의 수는 줄어들 것입니다. 하지만 선거의 외곽경비나 지원을 담당하시는 경찰 공무원은 계속 고생을 하여야 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우리 선거관련 시민단체는 상호 협력하여 여러분의 고충을 최대한 개선토록 필요한 각 부처에 건의하고 촉구하여 선거에 참여하는 경찰공무원의 사기 증진에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